

3(목)~16(일)



Siba

제12회 서울

[주최] (사)대한



Siba >> 제12회 서울 국제 빵 · 과자 페스티벌

# 한국 제과의 살아있는 힘 Siba 2005

(사)대한제과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노동부가 후원하는 제12회 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Seoul International Bakery Fair 2005, 이하 Siba 2005)이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렸다. 2년마다 개최되는 국내 최대 최고의 빵·과자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무려 11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 Siba 2005는 지난 1983년 제1회 대회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국제전시협회 UFI의 공식 인증을 받아 국제 전시회로서 면모를 인정받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답게 프랑스·일본·중국·대만·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외국인 참관단이 Siba 2005 기간 내내 줄을 이었다. UFI 인증은 국제전시협회가 전시회의 규모, 내용, 역사, 해외업체 참가 수 등 다양한 인증기준을 평가해 엄

정하게 선발하는 공신력 1위의 국제 전시회 인증제도다.

첫날 개막식에는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고계인 국장, 문화관광부 국제관광과 노일식 과장,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문상주 총회장 및 오호석 회장, 주한 프랑스대사관 띠에리 블랭 상무참사관, 세계양과자연맹 가브리엘 빠야송 부회장, 프랑국제과협회 프랑스와 까르트롱 회장, 일본양과자협회연합회 다카하시 유스케 회장, 대만제과협회 료본창 이사장, 중국제과협회 강일명 부비서관 등 국내외 제과 관련 단체 및 업계 대표가 대거 참가해 Siba 2005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제행사로 거듭난 Siba 2005는 한국 제과산업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데 참뜻이 있

# 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

(사)대한제과협회

주관 | 코엑스(COEX)

후원 |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며 “Siba 2005가 어려운 시대에 업체가 서로의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제과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로 Siba 2005를 찾은 내외빈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앞선 제과기술과 빠른 정보 소통의 장(場)

‘제과·제빵 산업의 균형 발전’을 모토로 펼쳐진 산업전시회는 원부재료 및 기계에 관한 최신정보를 서로 나누고 우리 농산물 등 다양한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보인 기회의 장(場)이었다. 올해 산업전시회에는 한국·네덜란드·노르웨이·벨기에·독일을 비롯한 13개 나라에서 81개 업체, 263개 부스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으며 업체마다 다양한 이벤트와 시식·체험행사를 마련해 제과·제빵의 사회적 지변을 확대하는데 한몫했다.

Siba 2005는 ‘제과인의’ ‘제과인에 의한’ ‘제과인을 위한’ 기술 향연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에 쏟아진 제과

인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듯 제12회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무려 950개나 되는 작품을 출품해 역대 Siba 사상 가장 많은 작품수를 기록했으며, 지난 11회 대회에 비해 빵·설탕·초콜릿 등 공예부문의 기술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얻었다. 많은 제과인의 관심 속에 펼쳐진 국제대회 한국대표선수선발전에서는 세계무대에서 한국 제과의 위상을 드높일 6명의 최정예 군단이 선발됐다.

이밖에도 (사)대한제과협회가 미래의 프로 제과인을 발굴·육성하는 취지로 개최하는 한국학생제과경연대회가 Siba 2005 현장에서 뜻 깊은 1회 대회를 맞이했다. 더불어 ‘베이커리 원도우 디스플레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제3회 노동부장관배 대한민국 선물포장기능경기대회는 제과·제빵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포장의 가치를 눈으로 보여주는 행사였다.

국내외의 열띤 관심과 호응 속에 펼쳐진 Siba 2005는 지난 10월 16일, ‘경진대회’와 ‘학생대회’의 시상식을 끝으로 2년 뒤 Siba 2007에서 만나기를 기약하며 나흘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